



주 제:	“작은 사랑”	“그리스도 왕 대축일”	2008년 11월 23일
복음 묵상:	[마태 25,31-46]	[에제 34,11-12,15-17]	[1 코린 15,20-26,28]

오늘은 전례력으로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이 날은 교황 비오 11세가 제정한 축일로,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민족들 사이에는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의 제사로 인류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고, 특히 세상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실 권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질 공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가난한 이의 복장을 하고 암행을 다녀와서, 그 때의 체험들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인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평소처럼 그분을 대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판결을 보면, 의인들로 분류된 사람들의 판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피 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을 받고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인으로 분류되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판결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의 이유는 나쁜 죄를 지었거나 약한 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헐벗으셨나’며 항변합니다. (의정부 문화 미디어극 강론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지난주 (11/16) 남자 단원 2차 단합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해 주신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과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허경애 수산나 자매님이 오라버니 수술및 조카의 결혼 참석차 11/20-12/10 까지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일 잘 치루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은 가족 상봉차 11/23- 12/2 까지 일정으로 한국으로 여행떠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 지고 편안한 여행길에 주님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 친손주 백일 참석차 12/6-12/10 의 여정으로 동부를 다녀오십니다.

총회 공고

2009년의 새해를 맞으며 지나온 2008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새해를 준비하고자 다름과 같이 총회를 소집을 공고 합니다.

다 음

일시및 장소: 2008년 12월 14일 (일) 교중 미사후 연습실

의제: 2008년 회계보고및 신입 단장 선출 및 기타

공지 사항:

1. 소식지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2.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오니 꼭 해 보시고...
3.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824>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 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잡게 할 것이다. 그 때에 그 임금의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들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 가라.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채하고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별반는 곳으로 쫓겨 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 갈 것이다."

1분 명상

♡"용서의 시작"♡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용서를
진심으로 실천하고 싶지만
감정적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용서는 시작된다.

- 상처와 용서 중에서 -

이 해가 다 하기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를 기억하고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용서 할 수 있는 힘을 청해야겠습니다.